

Blocking & NonBlocking

Blocking/ NonBlocking & Synchronous/ Asynchronous

Blocking

자신의 작업을 진행하다가 다른 주체의 작업이 시작되면 다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작업을 시작하는 것

NonBlock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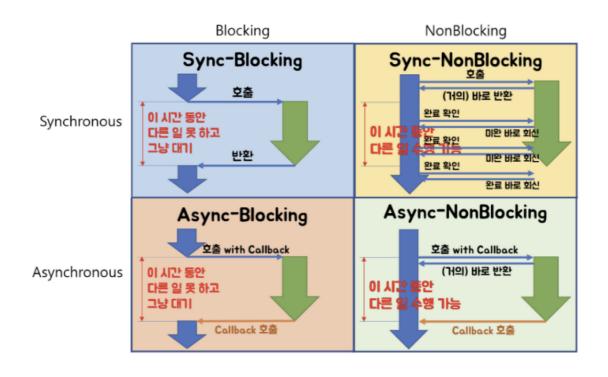
다른 주체의 작업에 관련 없이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것

• Synchronous 요청이 들어온 순서에 맞게 하나씩 처리하는 것

Asynchronous

하나의 요청이 끝나기도 전에, 다른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

Synchronous와 Blocking \rightarrow 무언가 기다리게 하는거 / Asynchronous와 Non-Blocking \rightarrow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각각 차이가 있다.



	Blocking	NonBlocking
Synchronous	Sync-Blocking - file.read() - file.write() - psmt.executeUpdate()	
Asynchronous		Async-NonBlocking - asyncFileChannel.read(,

Blocking/ NonBlocking

호출된 함수가 **호출한 함수에게 제어권을 건네주는 유무의 차이 (호출** 되는 함수가 바로 리턴을 하는 지 여부)

- Blocking : 호출된 함수는 **할 일을 다 마칠때까지 제어권을 가지고 있다**. 즉, <u>호출된 함</u>수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리턴하지 않는다.
- NonBlocking : 호출된 함수는 **할 일을 마지치 않았어도 제어권을 바로 넘겨준다.** 즉, 호출된 <u>함수가 바로 리턴하며 호출한 함수에게 제어권을 바로 넘겨주어</u>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Synchronous/ Asynchronou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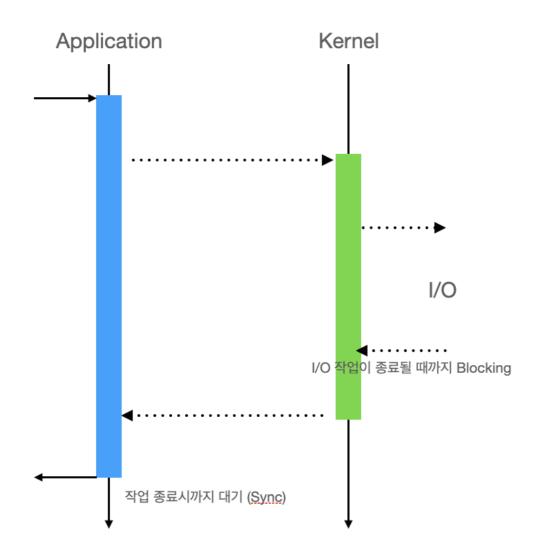
호출되는 함수의 작업 완료 여부를 누가 신경 쓰는지의 차이

- Synchronous : 호출하는 함수가 작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. 호출하는 함수는 호출된 함수의 작업 완료 여부 또는 작업 완료 후 리턴을 기다리고 있거나 주기적으로 체크한다.
- Asynchronous : 호출하는 함수가 작업 완료 여부를 신경 쓰지 않는다. 호출된 함수는 수행 상태를 자신이 혼자 직접 신경 쓰면서 처리한다. 비동기는 호출 시 Callback을 전

달하여 작업의 완료 여부를 호출한 함수에게 답하게 된다. Callback이 오기 전까지 호출한 함수는 신경쓰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.

Sync-Blocking

카페에 가서 음료가 나올 때 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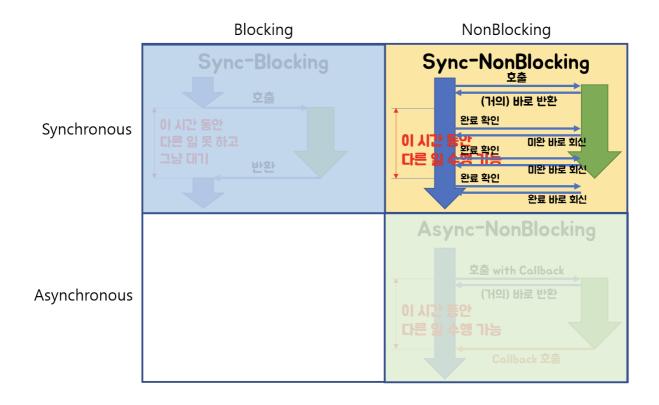
Sync-Blocking은 I/O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다른 작업을 못하고 대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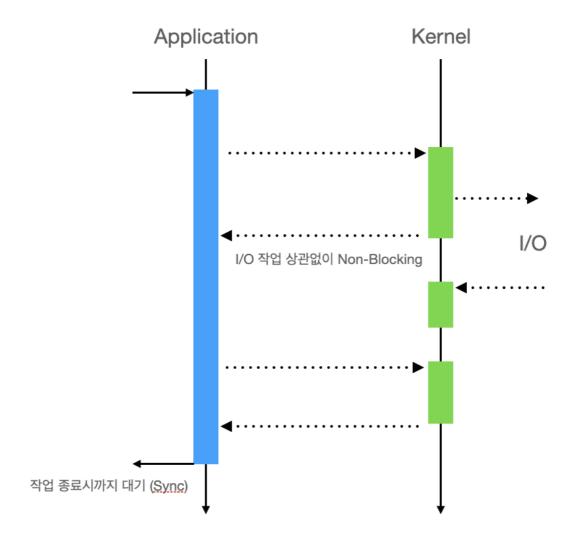
```
// 파일 입출력 함수
file.read()
file.wrtie()
```

```
System.out.print("메시지를 입력하세요 : ");
final Scanner scanner = new Scanner(System.in);
String message = scanner.nextLine();
System.out.println(message);
```

Sync-NonBlocking

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키고 앉아 있으면서 계속 언제 나오나 직접 체크





Sync-NonBlocking는 호출되는 함수는 바로 리턴하고, 호출하는 함수는 작업 완료 여부를 신경쓰는 것이다. 즉, NonBlocking 메서드 호출 후 바로 반환 받아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 게 되지만, 메서드 호출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호출하는 메서드가 호 출되는 메서드 쪽에 작업 완료 여부를 계속 문의한다.

```
Future ft = asyncFileChannel.read(~~~)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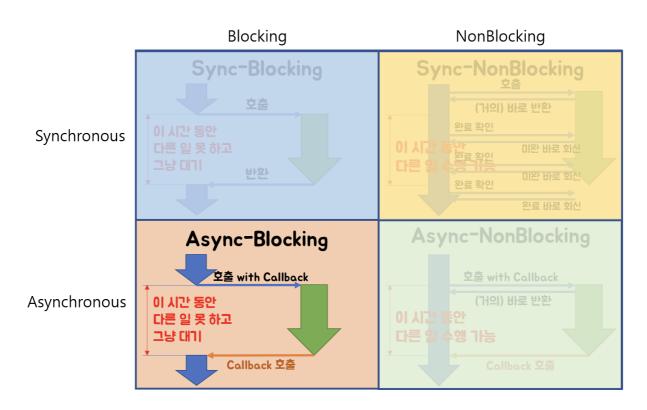
while(!ft.isDone()) {
    // isDone()은 asyncChannle.read()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false를 바로 리턴해준다.
    // isDone()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뿐 작업 완료를 스스로 신경쓰지 않고,
    // isDone()을 호출하는 쪽에서 계속 isDone()을 호출하면서 작업 완료를 신경쓴다.
    // asyncChannle.read()이 완료되지 않아도 여기에서 다른 작업 수행 가능
}

//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결과에 따른 다른 작업 처리
```

Async-Blocking

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켜서 진동벨은 주지만 딴거는 못하고 가만히 기 다려야함

Async-Blocking는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리턴하지 않고 호출하는 함수는 작업 완료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.



Sync-Blocking 방식과 성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음. 즉, 별로 이점이 없어 일부러 사용하지는 않지만 의도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. 대표적인 예가 Node.js와 MySQL의 조합이다.

Node.js쪽에서 async하게 해도 DB작업 호출 시 MySQL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호출 → 이 드라이버가 Blocking 방식이다. 즉, Blocking-Async는 별다른 장점이 없어서 일부러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, Async-NonBlocking 방식을 쓰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라도 Blocking으로 동작하는 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도하지 않게 Asnyc-Blocking으로 작동할 수 있다.

Async-NonBlocking

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키면 진동벨을 주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진동벨이 울리면 메뉴를 받는다.

일반적인 비동기 함수의 동작 방식과 같다.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바로 제어권을 반 환받는다. 제어권을 반환받은 함수는 호출된 함수의 작업 결과에 상관없이 바로 다른 작업을

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라인으로 넘어간다. 호출된 함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콜백 함수로 반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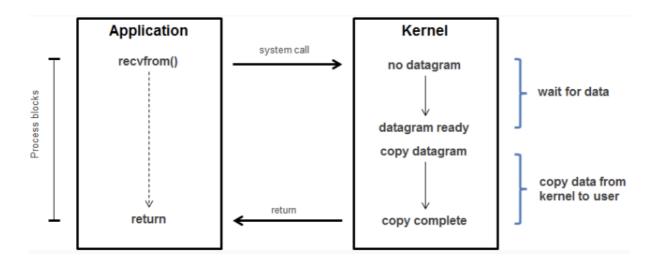
Blocking I/O & Non-Blocking I/O

I/O 작업은 유저 레벨에서 실행될 수 없고 커널 레벨에서만 실행 될 수 있다.

네트워크 에서의 소켓 recv/send가 I/O에 해당. 컴퓨터끼리 통신할 때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을 받는 과정

1. Blocking I/O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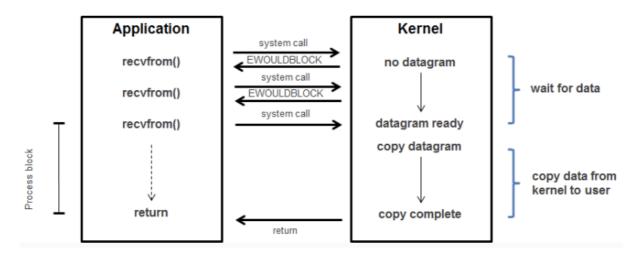
I/O 작업을 요청한 유저 프로세스는 **작업을 중단한 채 반환을 기다리면 서 대기**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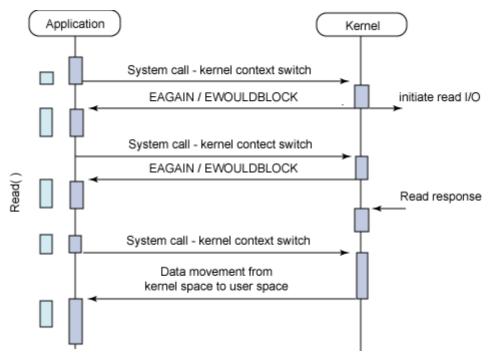


- 1. 유저가 커널에 작업을 요청하고 데이터가 입력될 때까지 대기한다.
- 2. 커널이 작업을 완료하면 작업 결과 받아옴
- I/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유저 프로세스는 자신의 작업을 중단한 채 대기
- 리소스 낭비가 심함 (I/O 작업이 CPU 자원 거의 사용 X)
- ex) 메시지를 보냈는데 응답이 올 때 까지 대기하며 메시지 사용 불가

2. Non-Blocking I/O Model

I/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**유저 프로세스의 작업을 중단하지 않음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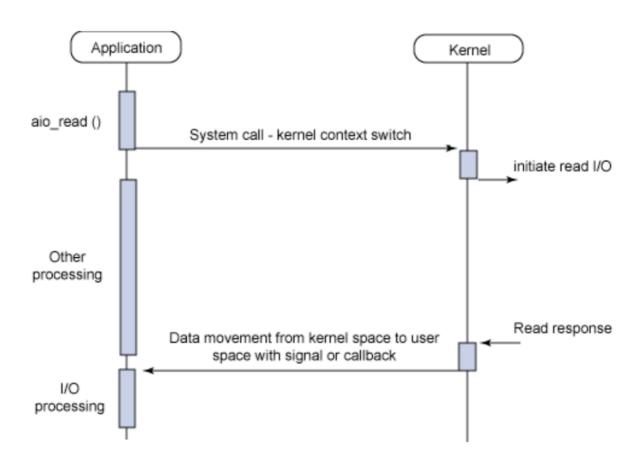


- 1. 유저 프로세스가 recvfrom 함수를 호출한다. 즉, 커널에게 해당 Socket으로 부터 data 를 받고 싶다고 요청한다.
- 2. Kernel은 이 요청에 대해서 곧바로 recvBuffer를 채워서 보내지 못하므로 "EWOULDBLOCK"을 리턴함
- 3. Blocking 방식과 달리 유저 프로세스는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.
- 4. recvBuffer에 user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, 버퍼로 부터 데이터를 복사하여 받아온다.
- 5. recvfrom함수는 빠른 속도로 data를 복사한 후, 복사한 데이터의 길이와 함께 반환한다.

I/O의 진행시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은 중지 없이도 I/O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. 하지만 반복적으로 시스템 호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에도 자원이 쓰이므로 낭비가 발생한다.

3. I/O 이벤트 통지 모델

수신 버퍼나 출력 버퍼의 이벤트를 통지한다



수신 버퍼의 이벤트는 말 그대로 **입력 버퍼에 데이터가 수신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**이고, 반대로 출력 버퍼의 이벤트는 **출력 버퍼가 비었으니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알려 주는 것**을 의미한다.

I/O 이벤트 통지 방식에 따라 동기 모델, 비동기 모델로 나눌 수 있다.

비동기 모델에서 유저 프로세스는 I/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을 하다가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 알림이 오면 처리하는 방식이다. Sync 방식과 반대로 커널이 주체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하고, 유저 프로세스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통지가 들어오면 그때 I/O 작업을 진행한다.